

2020년 9월 29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반발 매수세 증시 전반으로 확산 대형 기술주에 이어 반도체, 은행, 에너지 업종 상승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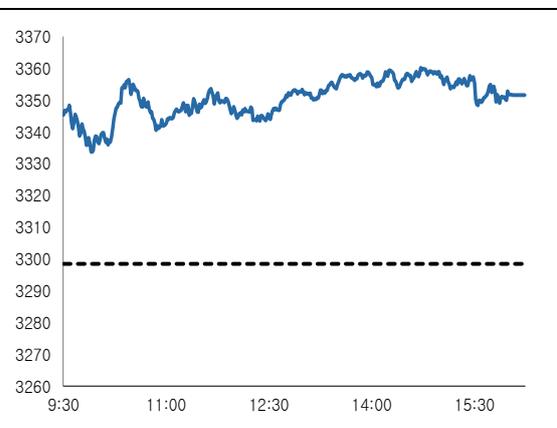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딥밸류 업종 상승 주도

미 증시는 최근 불법자금 이슈 및 추가 스트레스테스트 여파로 하락했던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유럽증시도 중국 평안보험이 HCBC(+8.89%) 지분 인수 소식에 기대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한 점도 긍정적. 대체로 미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 반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가운데 원자재 기업의 M&A 소식과 은행주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다우 +1.51%, 나스닥 +1.87%, S&P500 +1.61%, 러셀 2000 +2.40%)

지난 25 일(금) 미 증시는 9 월 들어 나스닥이 9% 넘게 하락하는 등 조정폭이 확대된 이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 이런 가운데 오늘도 합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펠로시 하원 의장의 추가 부양책 관련 낙관적인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우호적. 특히 불법자금 이슈 및 추가 스트레스테스트 여파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JP 모건(+2.88%) 등 금융주가 이를 주도. 더불어 호재생 재료가 유입된 일부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자 관련 업종이 상승하는 등 증시 주변 전반이 9 월 하락 이후 반발 매수세가 지속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이런 가운데 데본에너지(+11.11%)와 WPX 에너지(+16.44%)가 합병한다고 발표. 이번 거래로 세일 오일 기업들이 대형 회사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토대로 공격적인 가격 정책이 확산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 이 결과 지난 주 6% 내외 급락했던 에너지 업종 전반에 걸쳐 매수세가 유입. 더불어 AK 스틸을 인수했던 클리블랜드 클리프(+11.56%)가 아르셀로 미탈(+10.59%)의 미국 사업체 인수를 발표하자 급등. 여기에 향후 US 스틸(+6.61%)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며 철강 업종이 급등. 과거와 다른 점은 M&A 가 개별 기업만의 호재로 작용하지 않고 업종 전반의 호재로 작용했다는 점. 이는 최근 하락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음을 보여준 사례. 이러한 M&A 소식에 기반해 강세를 보인 업종과 더불어 리츠금융, 은행 등 배당 관련 기업들의 상승도 특징. 이는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일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308.08	+1.29	홍콩항셱	23,476.05	+1.04
KOSDAQ	835.91	+3.42	영국	5,927.93	+1.46
DOW	27,584.06	+1.51	독일	12,870.87	+3.22
NASDAQ	11,117.53	+1.87	프랑스	4,843.27	+2.40
S&P 500	3,351.60	+1.61	스페인	6,791.50	+2.46
상하이종합	3,217.54	-0.06	그리스	625.20	+1.18
일본	23,511.62	+1.32	이탈리아	19,160.10	+2.4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은행, 에너지 강세

Jp모건(+2.88%), BOA(+2.55%)등 금융주는 HSBC의 지분을 평안보험이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블랙록(+1.98%), 스테이트 스트리트(+3.40%) 등 운용사 및 찰스스왑(+3.61%) 등 증권사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데본에너지(+11.11%)는 WPX(+16.44%)와 합병하며 비용 절감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강세를 보였다. 옥시덴탈(+1.17%), 아파체(+4.26%) 등 소형 셰일 기업들도 M&A 기대속 강세를 보였으며 세브론(+2.92%)은 투자의견 상향 조정 소식에 힘입어 상승하며 에너지 업종 전반의 강세를 이끌었다. 아마존(+2.55%)은 10/13~14일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 속 강세를 보였다.

보잉(+6.44%)은 737맥스 재 운행 소식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급등했다. 테슬라(+3.40%)와 니오(+2.67%)는 이번 주 전기차 판매 수치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였다. 한편, 테슬라는 머스크가 현재 주가는 고평가라고 볼 수 있으나 5년내 더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 강세를 이어갔다. 호주의 피드몬트리툼(+236.36%)은 테슬라와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발표하자 아시아 시장에서 83% 급등한데 이어 미 시장에서 폭등을 했다. 리튬 아메리카스(+22.95%)도 동반 상승했다. 스노우플랙(+9.35%)은 세일즈포스(+1.62%)가 9.9% 지분을 공개하자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23%	대형 가치주 ETF(IVE)	+1.53%
에너지섹터 ETF(OIH)	+3.90%	중형 가치주 ETF(IWS)	+2.01%
소매업체 ETF(XRT)	+2.45%	소형 가치주 ETF(IWN)	+3.17%
금융섹터 ETF(XLF)	+2.38%	대형 성장주 ETF(VUG)	+1.77%
기술섹터 ETF(XLK)	+1.91%	중형 성장주 ETF(IWP)	+1.6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26%	소형 성장주 ETF(IWO)	+1.92%
인터넷업체 ETF(FDN)	+1.41%	배당주 ETF(DVY)	+1.76%
리츠업체 ETF(XLRE)	+1.76%	신흥국 고배당 ETF(DEM)	+1.07%
주택건설업체 ETF(XHB)	+3.19%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95%
바이오섹터 ETF(IBB)	+0.76%	미국 국채 ETF(IEF)	-0.02%
헬스케어 ETF(XLV)	+0.90%	하이일드 ETF(JNK)	+0.71%
곡물 ETF(DBA)	-0.68%	물가연동채 ETF(TIP)	+0.21%
반도체 ETF(SMH)	+2.54%	Long/short ETF(BTAL)	-1.38%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34.42	+2.33%	-3.31%	-13.97%
소재	399.24	+1.61%	+0.33%	-0.60%
산업재	658.23	+1.81%	+2.64%	-0.88%
경기소비재	1,209.21	+2.18%	+4.59%	-3.40%
필수소비재	655.30	+1.14%	+1.38%	-2.73%
헬스케어	1,211.66	+0.82%	+0.66%	-3.52%
금융	399.97	+2.27%	+0.43%	-4.93%
IT	2,042.32	+1.85%	+3.24%	-5.64%
커뮤니케이션	194.71	+1.19%	+2.00%	-7.24%
유틸리티	299.29	+0.26%	+2.06%	+0.26%
부동산	219.02	+1.70%	+2.32%	-3.3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추석 연휴 앞두고 매물 소화 과정 이어질 듯

MSCI 한국 지수 ETF 는 2.14% MSCI 신흥 지수 ETF 는 1.12%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67.8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지난 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특히 지난 금요일 낙폭이 컸던 미국의 대형 기술주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한 점이 이를 부추겼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 증시는 대형 기술주에 이어 은행, 철강, 에너지 등 지난 주 급락했던 종목들도 상승하는 등 반발 매수세가 주변부로 확산 된 점은 한국 증시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유로존 경제에 대해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할 수 있는 정책 도구 모두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 국제유가와 국채금리가 상승 하는 등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된 점이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지만, 추석 연휴 기간 미국 대선을 둘러싼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제조업지표 및 고용보고서 같은 주요 경제지표, 마이크론(+1.18%) 실적 발표 등 중요 이벤트가 몰려 있다는 점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나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 지표 개선

9월 달라스 연은 기업 활동지수는 전월(8.0)은 물론 예상(8.5)를 상회한 13.6으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신규수주(9.8→14.7), 생산지수(13.1→22.3), 고용지수(10.6→14.5)는 물론 설비 가동률(10.9→17.5) 등 대부분이 전월 대비 상승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채권시장 관망세 지속

국제유가는 민주당의 추가 부양책에 힘입어 상승했다. 더불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고 노르웨이 원유 시설 노동자들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줬다. 물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재차 확산하고 러시아 에너지 장관 또한 코로나 2 차 확산에 대해 경고해 상승이 제한되었다.

달러화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며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영국 총리 대변인이 브렉시트 협상에서 상당한 의견차가 있으나 협상은 잘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한편, 라가르드 ECB 총재는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부양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외 위안화 환율도 달러 대비 0.3% 강세를 보였으며, 호주달러 등 일부 상품 환율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다만 러시아 루블화와 브라질 헤알화의 경우는 달러 대비 1% 넘게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주가지수 상승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 대체로 미국 대선 1 차 TV 토론을 비롯해 주요 경제지표를 기다리는 심리가 더 많은 모습이었다. 더 나아가 미-중 무역분쟁 및 대법관 지명을 둘러싼 정치적 마찰 등 주요 변수가 이어지며 관망세가 짙은 하루였다.

금은 달러 약세 및 대선 불확실성 영향으로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보험으로 철근은 0.22%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0.60	+0.87	+2.68	Dollar Index	94.274	-0.39	+0.66
브렌트유	42.43	+1.22	+2.39	EUR/USD	1.1664	+0.28	-0.91
금	1,882.30	+0.86	-1.48	USD/JPY	105.54	-0.04	+0.85
은	23.604	+2.21	-3.21	GBP/USD	1.2832	+0.67	+0.12
알루미늄	1,775.00	+1.52	-0.25	USD/CHF	0.9246	-0.40	+1.10
전기동	6,572.00	+0.41	-1.79	AUD/USD	0.7072	+0.58	-2.10
아연	2,432.00	+2.66	-1.08	USD/CAD	1.3376	-0.07	+0.51
옥수수	366.75	+0.41	-0.81	USD/BRL	5.6381	+1.36	+4.13
밀	550.25	+1.10	-0.81	USD/CNH	6.8112	-0.25	+0.27
대두	996.25	-0.62	-2.57	USD/KRW	1173.60	+0.11	+1.35
커피	109.55	-3.61	-2.19	USD/KRW NDF1M	1167.84	-0.57	+0.25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659	+0.50	-0.64	스페인	0.244	-0.20	-0.60
한국	1.427	0.00	-6.80	포르투갈	0.258	-0.70	-0.90
일본	0.023	+1.20	+0.80	그리스	1.031	+1.30	-4.20
독일	-0.528	+0.10	+0.20	이탈리아	0.878	-0.70	-3.90